

생에 서서 - 이 철수의 그림들

1

인도를 여행할 때였다.

아무 데나 서서 마냥 시간을 보내는 인도식 기차에 지쳐 나 혼자 들판에 내렸다가 그만 기차를 놓친 적이 있었다. 그곳이 어딘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홀로 서 있게 되었다. 간이역마저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다만 머리에 물동이를 인 여인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사리를 휘감고서 끝없는 지평선 너머로 이따금씩 사라져갈 뿐이었다.

신기루와도 같은 그 풍경 속에서 마냥 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열대의 태양은 모든 것을 증발시켜 버릴 것처럼 강렬했다. 그곳에 그냥 서 있다가는 내 존재가 금방 먼지로 화해 무(無)의 세계로 돌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물 한 병을 들고 어딘가에 있을 마을을 찾아 걷기 시작했다. 사막과 다를 바 없는 그 무인지대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치 병 속의 진공 상태에 돌연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법이다.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가, 갑자기 생의 진공 상태에 빠져 버린다. 그곳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무대 배경이라곤 흰색의 빛뿐이다. 나는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만 무의미가 나를 지배해 버린다.

나는 그 진공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쉬지 않고 들판을 걸었다. 드문드문 서 있는 커다란 벵골보리수 나무들만이 대지에 한 점씩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 시간도 채 견디지 않아서 나는 지쳤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 시간마저 지워져버렸다. 나는 갖고 있던 배낭을 들판에 버려둔 채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오후가 끝나갈 무렵 나는 멀리 지평선 끝에서 가물거리는 어느 유목민들의 천막을 발견했다. 그들은 염소 몇 마리를 데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곳에서, 무언의 생을 살아가는 한 무리의 인간들과 해후할 수 있었다.

내 시야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유목민들이 천막 뒤편에 쌓아둔 장작더미들이었다. 이제 곧 인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더운 지방이지만 겨울밤의 들판은 추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먼 곳까지 돌아다니며 그 장작들을 주워 모았을 것이다. 그 장작더미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문득 아까의 진공 상태에서 간단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금 생의 의미가 내 가슴을 채웠다. 오후의 햇빛이 한 토막씩 장작더미 위로 쌓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따뜻한 겨울을 나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비로소 인간의 마을에 도착 한 것이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다.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또다시 무의 세계에 빨려 들어갔다가 힘들게 빠져나오곤 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철수의 판화작품 <해-장작더미>를

만났다. 다름 아닌, 무한천공에서 햇빛이 한 토막씩 내려와 집 뒤에 장작더미로 쌓이고 있는 풍경이었다. 나에게 생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웠던 그 풍경. 이미 내 내면에 자리 잡고서 내가 진공사상태에 빠질 때마다 말을 걸어오곤 하는 바로 그 아득한 평온함의 세계였다.



그 후 이 철수의 그 그림은 햇빛과 나뭇가지의 내밀한 풍경을 그린 <적조(寂照)-햇살>과 함께 몇 내 동안 내 방에 걸려 있는 유일한 그림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뒤결에 햇빛의 장작더미가 쌓이는 그 작고 내밀한 집에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었다. 그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인도에서 맞닥뜨렸던 풍경들이 다시금 말을 걸어온다. 사리로 얼굴을 가리고 점점이 멀어져가던 여인들, 언어도 없고 길도 없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마침내 다가간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의 세계 - 그것이 이 철수의 탁월한 재능이다. 그는 삶과 광막한 들판에서 가끔씩 진공상태에 빠지곤 하는 나에게 인간의 따뜻한 내면세계를 열어보이곤 한다. 그는 내가 갖기를 꿈꾸는, 자기 주변의 아무 것도 아닌 풍경들을 순식간에 내면 풍경으로 바꿔버리는 명상가의 눈을 어느새 갖고 있다.

2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다.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엘 그레코는 커튼을 무겁게 치고 방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 구경을 좀 하거나”

그러자 엘 그레코가 대답했다.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하지. 지금은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빛이 더 밝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어느 늙은 유태교 랍비에게도 있었다. 그는 너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었다. 그러자 심령 치료 능력이 있는 한 젊은 랍비가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저에게 의지하십시오. 제가 눈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늙은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가 없네. 나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 보고 있다네.”

내가 이 철수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나에게 최근에 완성시킨 작품 몇 점을 보여주었다. <무선 전화기>라는 제목의 그림에서는 어떤 사람이 산 속의 늙은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스님. 세상 구경 좀 하시지요.”

그러자 그 늙은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여기서는 더 잘 보이네.”

또 다른 작품 <창>의 연작에서도 이 철수는 ‘그이 창문에 해가 천 개’ ‘그 집에 창이 천개’라는 화제와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불교의 선(禪)에 심취해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평론가다운 그 표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가 어느덧 도달해 있고 작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세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곧 삶의 본질인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그려 보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선적인 세계라고 하든 ‘내면의 빛’ 또는 ‘세상 만물이 깃드는 자리’ 라고 하든 우리는 결국 그 지점으로 다가가해만 한다. 그리고 그 빛의 밝기는 외부의 빛의 밝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의 작업실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 철수는 나와 얘기를 나누면서도 쉼 없이 조각칼을 돌려 나무판에 무엇인가를 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비치는 일천 개의 해를 표현하느라 머리가 뜨거워져 있었다.

내가 언제 한번 인도 여행을 하자고 권하자 그는 특유의 장난스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방문에 ‘인도’라고 적어놓으면 그곳이 곧 인도 아닌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 밑의 산골 마을에서 십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과연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은 그 빛으로 향해 가는 짧은 여정일 뿐이다. 그 여정에는 지도가 없다. 여행길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 목적지를 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정의 끝에 이르러, 이 철수가 말하는 <산목련>의 세계와 만나게 되리라.



-정진중이라 인적 없는데, 뜰에 산목련 꽃망울 겨울을 춥게 난다. 봄날, 꽃처럼 환해져서 나서는 이는 산목련 밝은 꽃과 만나서 좋지.

그의 신작들을 보느라 밤이 깊었다. 잠깐 밖에 나왔다가 나는 구름들 사이로 얼핏 비치는 산골 마을의 별들을 보았다. 어떤 별은 잠시 허공에 머물러 있다가 순간 빛금을 그으며 떨어졌다. 누군가의 한 생애처럼. 이 철수가 <배꽃>에서 그려 보인 바로 그 별뚱별이었다.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
한 생애가

빨리 흐르는 저

별뿔과 같음을 안다.

3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제 10대 파워 린포체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어느 고승의 환생을 예측하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워 린포체가 식당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개미는 햇빛을 향해 미끄러운 마루바닥을 힘겹게 기어가고 있었다.

파워 린포체는 너무 늙어서 이미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달라이 마라에게 자기 대신 그 작은 생명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달라이 라마는 개미를 살짝 집어 집어 들고 축복의 말을 속삭인 다음,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개미를 안전하게 내려 주었다. 그리고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다시 식탁에 앉았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린포체 님. 당신의 눈은 노안(老眼)이 되었지만 제 눈보다 좋군요. 사람들은 절대적 세계와 고귀한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주위에 살아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삶이지요.”

그 후 달라이 라마는 프랑스에서 자비에 대해 강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육체의 눈이 늙어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개미 한 마리에게서 우주를 보는 심안(心眼)은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의 눈에 이 철수의 그림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속에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내면의 빛을 이야기하지만 주위에 살아있는 것들과 이름 없는 사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밝은 눈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것들과 삶과 죽음을 투명하게 꿰뚫는다. 그는 결코 사상이나 가짜 인식론에 사로잡혀 눈앞에 기어가는 개미, 겨울을 나는 목련, 대숲에 머물었다가 한낱 기억처럼 날아가는 되새 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직 노(老) 대가의 호칭을 들으려면 많은 세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물이 일어나고 스러짐을 관조하는 눈과 귀를 갖고 있다.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자주 그것에 놀란다. 그 귀는 대승사 산신각 아래 마른풀 열매가 부르는 겨울 노래를 듣고, 그 눈은 시선 하나에도 떨어져 내리는 화엄사의 꽃잎을 되비친다. 회랑대 가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한 여승의 뒷모습, 허공에 나타났다가 다시 허공으로 가버리는 나무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아내의 발 그것들이 이번에는 내 시선을 붙든다.



그 무상한 존재들이 이번에는 내 눈을 통해 나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 못소리들이 고요해진다. 어떻게 해서 이 철수는 동서양의 노대가들이 획득했던 그 투명한 상태에 이른 걸까.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신은 내가 그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한 그 상태에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토록 빠르게 다가간 걸까.

새로 찍은 작품들 중에서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그림은 그가 싸구려 붓으로 아무렇게나 그린 듯한 <이름 모르겠던 꽃나무에게>이다. 그는 마치 에크하르트가 말하듯이, 그 꽃나무 밑에 이렇게 적었다.

쌍계사에서도 살더니 천은사에도 사는구나. 혼한 놈!



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 삶과 죽음에 초연했던 한 일본 선승이 있었다. 하루는 시를 쓰는 친구가 그를 찾아와 그날 아침에 쓴 시를 한편 읽어주었다.

“오늘은 새해의 일곱 번째 날, 죽기에 참으로 좋은 날 아닌가!”

시인이 시 읽기를 마치자 선승은 고개를 떨구고 이미 죽어있었다.

여기 이 철수의 판화 <좌탈(坐脫)>이 있다. 좌탈이란 말 그대로 앉아서 옷 벗는 일이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육신을 벗는 사람들의 깊고 내밀한 풍경을 그는 여러 작품에서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것들은 한 편의 아름다운 화면처럼 내게로 건너온다. 밤이 깊어 바람 없이 꽃잎이 지고 있다. 대나무 숲에 앉았던 새들 우수수 공중으로 날아가고, 늙은이 눈에 줄음이 가득하다. 그 늙은이는 앉은 채로 이렇게 육신의 옷을 벗는다.

나 갈라네. 졸려서 그냥 갈라네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가장 충실하게 드러난 작품들이 바로 이 <좌탈>이란 연작이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에 대한 성찰은 곧 죽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여행은 또 다른 여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왔다가 갈 뿐이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 그 밑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름 없는 노승. 그 노승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가을이라 그(이파리)가 지는구나.

나도 지느니. 고요한 소식이라, 떠들어 알릴 것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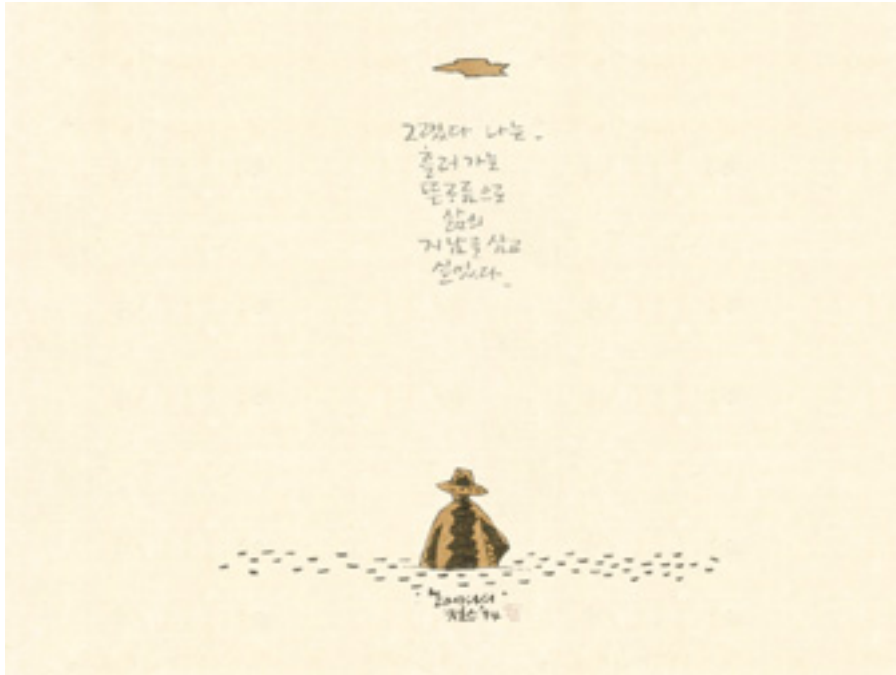
그 노승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어느덧 나 또한 존재의 일어나고 스러짐을 관조하는 눈을 얻게 된다. 그것이 이 철수 그림의 힘이다. 그는 장식물들을 지워버린 단순한 화폭 속으로 금방 나를 끌어들인다. 일상의 일들과 분주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나는 어느새 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대숲에 바람 범람하는 저녁을 맞이한다. 그리고 내 곁에서는 차 한 잔이 저 혼자 식어간다. 사실 이 철수가 낸 판화 모음집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와 <산 빛 나무 꽃피었는데>의 몇몇 작품들은 늘어나는 명상 서적류의 난잡한 글들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또 다른 노승은 마루 끝에 앉아 생의 끝을 이렇게 노래한다.



봐라. 꽃이다! 봄날이 길 떠나기야 좋지. 가야겠다. 있거라.

그렇다. 그 노승이 말년에 이르러 획득한 허공의 빛을 우리 또한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 고요와 내면의 빛으로 향해 가는 여행길에서 나는 이 철수의 조각칼을 빌어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랬다 나는.
흘러가는
흰 구름으로
삶의
지남을 삼고
싶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눈에 서서>인데, 조각칼로 새긴 그 글자가 내게는 <生에 서서>로 읽혔다.

글 / 류시화

출처 / 학고재 <마른 풀의 노래>에서